

## ◆ 05년 9월 고1 35~39번

【35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적 지배는 타인에 대한 지배이기 때문에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원래 인간은 감정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지배자는 상대가 자기의 명령이나 지도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일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만일 의도한 대로 상대를 이끌어 가는 데 실패하면 최후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 발동(發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지배하는 것은 가장 열등한 지배 방식이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 그러기에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배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상징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 상징 조작이다.

상징은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 피운 연기처럼 어떤 것을 대신 나타내 주는 사물이나 기호이다. 상징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 행동과 상징은 근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서 상징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國家), 권력 등을 국기, 국가(國歌), 제복 등의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흔한데,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징 조작은 효과적인 지배 기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찰스 메리엄은 정치에서의 상징 조작을 미란다와 크레덴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미란다라는 말은 원래 ‘감탄할 만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온 말로 놀랄 만큼 뛰어난 정치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희구(希求)하거나 어떤 질서에 ㉡ 귀속(歸屬)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이런 심리에 호소하는 상징을 ‘동일시의 상징’이라 한다. 동일시의 상징이란 국기를 바라볼 때나 국가(國歌)를 같이 부를 때 모두가 동일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자아내는 것처럼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각종 기념일, 공공 장소와 기념관, 제복, 기념식, 동상 등도 그 예이다. 권력의 미란다는 이러한 동일시의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 규합(糾合)시키려 한다.

반면 크레덴다는 신화 용어에서 온 말로 ‘신조(信條)’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대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 수긍(首肯)한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람들의 이성을 움직이는 기호를 ‘합리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권력의 크레덴다는 이러한 합리화의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권력의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곧 권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국민들

의 마음속에 심어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하는 은밀한 정치 기술의 하나가 크레덴다인 것이다. 여기에는 헌법 제정,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적 권력이든 민주적 권력이든 지배자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피지배자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정치 기술, 즉 상징 조작을 통한 지배 방법을 흔히 사용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고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 확보(確保)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상징 조작을 통한 지배 권력의 정당화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35. 위 글의 집필 동기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인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 하였다.
- ② 상징 조작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밝혀 그 우열을 드러내려 하였다.
- ③ 피지배자들의 심리를 조작하여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려 하였다.
- ④ 현재의 정치 기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 새로운 정치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려 하였다.
- ⑤ 현대 정치학이 이론 학문적 성과를 제시하여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다.

3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관해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

- ①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지배자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지배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차원 높은 지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지배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⑤ 지배자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지 못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7. '미란다'와 '크레덴다'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미란다	크레덴다
① 유래	'감탄할 만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온 말	신학 용어에서 온 말로 '신조(信條)'를 의미함
② 성격	동일시의 상징	합리화의 상징
③ 방법	정서적인 면에 호소	이지적인 면에 호소
④ 특징	강제적인 복종 유도	자발적인 복종 유도
⑤ 공통점	인간의 심리 조작	

38. 위 글에서 설명한 '상징 조작'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자가용 운전자가 혼잣말로) "바벨 때면 신호등에 자주 걸린단 말야."
- ② (친구간의 대화에서) "체력 단련을 위해 오늘부터 수영을 배울 생각이야."
- ③ (엄마가 아이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저기 화장실 표지가 보이지? 얼른 다녀와."
- ④ (주민들의 대화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어디에서 불이 났나 보군."
- ⑤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사에 와서 참배하니 감회가 남다르지?"

3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공공 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함
- ② ㉡ : 어떤 개인이 특정 단체의 소속이 됨
- ③ ㉢ : 남을 껴치어 이끌어 줌
- ④ ㉣ : 옳다고 인정함
- ⑤ ㉤ :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

◆ 11 MDEET 언어추론 14~16번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페인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므로, ㉠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기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다소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권리 개념까지도 수용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페인은 국가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각자 주권을 갖고 지도자와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란 공히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소멸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신성한 인간 권리의 수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택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도자나 국민 모두 회의주의나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민주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 버크, 페인, 러셀의 공통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수결의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 ②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 ③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은 존엄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존재이다.
- ⑤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15.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크가 말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② 버크는 국민의 자질이나 역할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더 중시했다.
- ③ 페인에 따르면 국민은 권리 보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 ④ 페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 ⑤ 러셀에 따르면 민주적 선거는 국민과 지도자 간 권력 관계의 평등을 보장한다.

16.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시간대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진입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 ②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발생 지역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 ③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 발찌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
- ④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 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 개발을 제한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화주의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에 적합한 형태의 공동체에 관해서는 주로 그 규모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시민적 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파벌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크기가 작아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 위협에 맞서 충분한 안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미국 헌법 제정기의 **연방주의자**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 10~1788. 8)의 저자들은 바로 연방 공화국의 형태가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대외적 취약성을 둘러싼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파벌 지도자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분할의 이익과, 한데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도록 하는 결집의 이익을 함께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불가피하게 소원한 거리에 놓인 사람들이 우정과 연대의 공적 정신을 유지하기란 더 어려울 수 있다. 광대한 영토 위에서 공화주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익의 추구를 자제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와 권력분립 등 헌정주의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이성과 법의 지배를 통하여 파벌과 전체적(專制的) 다수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사그라지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헌법의 틀을 씌웠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이해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헌법은 주로 정치 공동체의 실질적인 가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견고한 문서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헌법적 논쟁들에 대해 판단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헌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작용이나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법적인 의미로 이해된 헌법과는 달리,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헌법이란 단순히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분할되는 방식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구성된 특수한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것이었다. 통치자의 선출과 정치적 지분의 할당을 통해 경쟁적 사회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로마의 혼합정체 이래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골자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등장한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은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적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조차 의도되었던 바가 아니며, 성문의 헌법을 채택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사법적 헌장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헌장을 갖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헌법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과거의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헌법을 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공화주의를 위하여 제안되는 이른바 ㉠ **헌정주의적 수단들이** 역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적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제안되는 법

률의 헌법 기속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이 다수결로 도출하는 합의를 불신한다는 면에서 공동체적 삶의 향배를 시민들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이며,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장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해서 소수의 현자들에 의한 사법 심사의 과정으로 뒷받침되는 헌법은 더 이상 공화주의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미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데도 방해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의 상황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통치자의 선출이나 할당된 지분의 행사에서처럼 투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사법 심사의 장이 그와 같은 토론의 과정을 촉발시키고 이끔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동선에 관한 이성적 숙의에서 찾자 했던 공화주의자들의 관점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화국의 광대한 영토는 대외적 방어에 불리하다.
- ② 공화주의자는 시민으로서의 삶보다 개인으로서의 삶을 중시한다.
- ③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안전보다 연대를 추구하였다.
- ④ 연방주의자는 공화주의의 딜레마가 지닌 정치적 함의를 간과하였다.
- ⑤ 로마의 혼합정체는 공화국의 대내적 균형을 확보해 주는 장치였다.

12. **연방주의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방 공화국의 정부 형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개념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출된 대표가 파벌 지도자로 변질되는 것을 연방이라는 헌정 체제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 ③ 공화국에 대한 내부 위협은 소규모의 파벌이 광대한 영역 기반의 대규모 파벌로 커질 때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 ④ 규모가 커진 공화국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다양성도 커져서 정치적 분열이 초래되어 전체적 다수가 형성되기 어렵다.
- ⑤ 인간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파벌의 싹은 근절될 수 없으므로 그것의 발호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13.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과정으로 대체한다.
- ② 헌법적 가치의 선언을 통해 의회의 결정 권한에 대한 제한을 공식화한다.
- ③ 성문화된 헌법은 최고법적 효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의 제한을 꾀한다.
- ⑤ 법의 지배는 그 누구의 지배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공화주의 이념과 연결된다.

◆ 10 LEET 언어이해 16~18번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정된 중간집단 금지에 관한 법들은 개인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동업조합, 상인조합은 물론 정당 활동까지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 루소는 이미 국가에서 특수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개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성을 가진 개인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일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함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우선 혁명 시기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거권을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권의 제한은 공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라는 '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였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외국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국의 위기가 선언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상퀼로트들도 국민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상퀼로트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을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공화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민이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었다.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대표의 절대화—대표와 국민의 일치를 통한 대표의 절대 권력—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789년 이후 19세기 동안 '이성', '수' 그리고 '덕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의 위협에 시달렸다. 중간집단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던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귀족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토크빌은 귀족정 시대 중간집단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였다. 혁명과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가는 그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크빌은 ① 민주주의 시대 중간집단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지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3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서 중간집단을 다시 허용하였다. 뒤르켐은 분업이 급속하게 진행된 당시 사회에서 직업적 도덕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직업 집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후 백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집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정착되기 시작한 정당 체제는 새로운 엘리트층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자리 매김 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16.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소는 일반의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중간집단의 제거를 원하였다.
- ② 혁명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간주하였다.
- ③ 상퀼로트들은 혁명이 급진화된 시기에 등장하여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적 실천을 공화국의 제도 내에 한정하였다.
- ⑤ 뒤르켐은 직업 집단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7. 위 글에 등장하는 '수', '이성', '덕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성'과 '덕성'이 '수'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 ② '이성', '덕성'의 견제 능력이 위축되면서 '수'의 민주주의는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 ③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는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 ④ '이성'이나 '덕성'은 '수'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의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⑤ '덕성'을 매개로 하여 '수'와 '이성'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국민과 대표의 동일시를 가져와 절대 권력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18. ㉠에 대한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학부모 단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 사회 단체
- ③ 노동자 정당과의 연계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익 옹호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합
- ④ 경제 현안의 해결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문제 대책 위원회
- ⑤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 공론을 주도하고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지식인·학자들의 독자적 집단

◆ 11 LEET 언어이해 24~26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3공화국(1875~1940)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세력화한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강력한 노동조합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려는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의제를 핵심으로 한 체제를 안정화해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의 원칙 및 국가의 역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왕의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대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1916)였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 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극빈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제도의 도입(1914)이었다. '실업'과 '실업자'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적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노동자 정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대의제 개념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권리의 확장이라는 두 요소가 확장된 대의제를 통하여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원환(圓環)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원환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던 노동자 정당은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였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부 내의 위원회들은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포괄하였다.
- ② 노동 위원회의 설치에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③ 행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 ④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⑤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부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기본 대책이 되었다.

25. 제3공화국에서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강화
- ②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 확대
- ③ 의회주의를 통한 특수 이익 대표 체계의 강화
- ④ 사회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⑤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체제 내 포섭

26.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 내 위원회 확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②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 ③ 정책 감시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의 다양화
- ④ 효율적인 여론 수렴 방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 ⑤ 특수 이익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국가 자율성의 확보

◆ 06 경찰대 1차 16~20번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사회학자들은 파시즘이 단지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성격에 내재한 항구적인 것이며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단지 그 극단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파시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침투해 있어 그것이 파시즘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정도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중에는 성(性)과 가족,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범주들이 있다.

언뜻 보기에 자연스럽게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범주들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가르치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전체에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종속시키려는 경향이 작용하고 있다. 파시즘은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히틀러에 따르면, “남녀 각자가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한, 남녀 간 갈등은 (...)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자연이 부여한 임무’란 남녀의 성적 특징이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기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즘은 “전쟁이 남자의 것이라면, 어머니다움은 여자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파시즘이 이러한 남녀의 **자연성**이 나타났던 과거를 황금시대로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전쟁을 미화하는 파시즘에 있어서는 호전성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지닌 남자가 국가의 주체가 된다. 이 주체는 부드러움과 가정의 수호천사, 자녀 양육의 책임 등을 지닌 여성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권력은 남자의 영역이며, 가정 또는 사적인 생활은 여자의 영역이 되고 만다. “어머니가 없는 민족, 요람이 없는 민족은 (...)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결국은 노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은 성별 구분이 뚜렷한 가족주의적 국가·민족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여성의 모성성(母性性)을 ㉠**신화화(神話化)**하는 동시에 여성을 가정에 국한시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제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독신자나 이혼녀, 그리고 자녀를 안 낳으려는 부부 등을 비정상적으로 보게 한다는 데 있다. 여기에 자율적인 개인적 삶이 들어설 공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개인적 삶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과 파시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를 구분하고 남성을 공적 영역에, 여성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켜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당연한 듯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위상 변화와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쟁점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 가정의 소중함은 중요하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 또한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소중함 못지않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역시 소중하다. 거기서 민주적 사회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

16.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시즘의 형성과 가족의 기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② 일상적 삶에 침투한 파시즘의 실체, 무엇이 문제인가?

- ③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파시즘적 요소는 무엇인가?
- ④ 파시즘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⑤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가로막는 파시즘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가?

17. 위 글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택한 글쓰기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분석적 접근을 통해 파시즘의 성격을 규명한다.
- ②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 ③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론하여 파시즘의 생명력을 강조한다.
- ④ 반대론자와 충돌하는 이유를 밝혀 파시즘의 비민주성을 보여준다.
- ⑤ 파시즘의 요소를 우리 현실에서 찾아 파시즘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한다.

18. 위 글에서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예를 더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 ‘-화(化)’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한자어의 경우 이렇게 일부 명사의 뒤에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예가 많다.

- ① ‘생명력’의 ‘-력(力)’                      ② ‘자연성’의 ‘-성(性)’
- ③ ‘책임감’의 ‘-감(感)’                      ④ ‘불가피’의 ‘-피(避)’
- ⑤ ‘주체적’의 ‘-적(的)’

19. <보기>에서 글쓴이가 옹호할 만한 것은?

— <보기> —

㉠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불효지.  
 ㉡ 집을 팔려면 남편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해.  
 ㉢ 남자의 정년은 65세, 여자의 정년은 61세가 적당하지.  
 ㉣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 위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파시즘은 자유주의자들의 삶의 태도를 긍정하지 않는군.
- ② 파시즘은 전쟁을 예찬하면서 모든 국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려 하는군.
- ③ 파시즘은 과거의 황금시대에 나타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군.
- ④ 파시즘은 남녀의 성 역할의 차이를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는군.
- ⑤ 참다운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존중해야 하겠군.

◆ 22 LEET 언어이해 13~15번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파시즘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본디 파시즘은 1919년에서 1945년까지 무솔리니가 이끈 정치 운동, 체제, 이념만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얼마 후 히틀러의 나치즘 역시 파시즘의 하나로 취급되었고, 점차 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도 다양해져 갔다. 이에 따라 파시즘에 대한 해석 및 정의는 용어의 대상만큼이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었다.

비교적 일찍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 개념에 바탕을 둔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인데, 대표적인 것은 ‘코민테른 테제’이다. 이에 따르면, 파시즘이란 “금융 자본의 가장 반동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분파의 공공연한 테러 독재”이다. 즉, 파시즘이 자본주의의 도구이며, 대자본의 대리인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톨리아티는 파시즘이 소부르주아적 성격의 대중적 기반 위에 있었다고 파악했으며, 나아가 탈하이머와 바이다는 파시즘이 계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들에 따르면,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면서 어느 한쪽이 절대 우위를 갖추지 못하면 제3의 세력이 등장하는데, 파시즘이 그 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에 대해 오늘날의 연구는 대체로 파시즘과 거대 자본 사이의 조화와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 국면을 강조한다. 또한 코민테른 테제는 지나친 단순화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2차 대전 이후에는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뭉뚱그려 전체주의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경향을 ‘전체주의 이론’으로 칭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전체주의의 특징을 메시아 이데올로기, 유일 정당, 비밀경찰의 테러, 대중 매체의 독점, 무력 장악, 경제의 통제로 꼽았다. 이는 전체주의를 ‘문제화’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파시즘과 스탈린주의는 전혀 다른 계급적 토대 위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므로 동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사적 전통 속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파시즘을 아예 개별적 사례로만 미시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 그리핀이 새로운 시각에서 일반화된 개념을 제시하여 각국의 유사한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에 따르면, 파시즘은 근대적 대중 정치의 한 부류로서, 특정한 민족 혹은 종족 공동체의 정치 문화와 사회 문화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신화’를 수단으로 삼아 내적 응집력과 대중의 지지라는 추동력을 얻어낸다. 그 ‘신화’란 자유주의 몰락 이후의 질서라는 고난 속에서 쇠퇴의 위기에 처한 민족공동체가 새로운 엘리트의 지도 아래 부활한다는 것이다. 파시스트는 이 신화의 틀 내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을 적대적인 세력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무로 믿었다. 그들에게 폭력은 곧 죽어가는 민족의 ‘치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유’만으로는 부족했고, 신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오직 역동성과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만 무장한 ‘파시즘적 인간’으로 거듭 나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또 신화의 궁극적인 실현, 즉 ‘민족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수용하고 과학 문명의 성과를 환영하는 근대적 성격을 보여준 것에 주목하여 파시즘을 일종의 ‘근대적 혁명’이라고 보았다.

물론 그리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 팩스턴은 파시즘이 근대적 혁명이라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파시즘을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독재의 변종으로 규정한다. 그는 혁명으로 보이는 파시즘이 실은 기성 제도 및 전통적 엘리트 계층과 연합했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중 국가’ 개념을 파시즘 체제 분석에 적용시켰다. ‘이중 국가’는 합법성에 따라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표준 국가’가 당의 ‘동형 기구’로 만들어진 독단적 ‘특권 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협력 속에 공존한다는 개념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당 지부장은 임명직 시장에, 당 서기는 지사에, 파시스트 민병대는 군대에 해당했다. 팩스턴에 따르면, 파시즘 정권은 형식적 관료주의와 독단적 폭력이 혼합된 기묘한 형태였다. 세부적 차이가 있다면, 특권 국가가 결국 우위를 점한 나치와 달리 무솔리니는 표준 국가의 영역에 더 큰 권력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1943년 7월 연합국의 진격으로 파시즘이 국가 이익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표준 국가는 ‘지도자’ 무솔리니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 중에는 계급 간 대립을 부인하면서 파시즘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 ② 이탈리아와 독일, 소련의 억압적 체제들을 하나의 범주로 파악한 것은 냉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③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특정 시기에 있었던 정치 현상을 가리켰지만, 지시 대상이 점차 확장되었다.
- ④ 전체주의 이론은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서로 다른 기반과 목적을 간과하고 표면적 특징만을 추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⑤ 파시즘을 국수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성향의 대자본이 폭력을 수단으로 정권을 유지하려 한 정치 체제로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적 해석이다.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파시즘의 최종 목표가 ‘파시즘적 인간’을 완성해 내는 것이고, 폭력의 사용 및 자본과의 협력은 이를 위한 도구였다고 보았다.
- ② ㉠은 파시즘이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맞이한 민족적 고난을 지도적 엘리트에 의해 극복한다는 ‘신화’를 세력의 단결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 ③ ㉡은 독일 나치즘에서는 독단적 폭력이, 이탈리아 파시즘에서는 형식적 관료주의가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 ④ ㉡은 파시즘 치하에서 이중적 권력 기구가 갈등 속에서도 병존하는 현상을 권위주의적 독재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 ⑤ ㉠은 파시즘에서 나타난 근대적 성격에 주목하여 혁명적 성격을 가졌다고 파악했고, ㉡은 기득권층과의 연합에 주목하여 혁명적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다)의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가) 이탈리아 파시즘 치하에서 소유 관계와 계급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에 파시스트 ‘혁명’을 굳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문화 혁명 정도가 될 것이다. 동시에 파시즘이 전통 문화와 타협하며 대중의 수동적 동의를 확보하려고 한 점을 보면, 그 문화 혁명이라는 것의 한계도 분명했다.
- (나) 무솔리니 내각을 통상의 다른 행정부처럼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파시즘은 사회 개혁의 실패, 즉 이탈리아 고유의 민족적 모순의 발현이며, 따라서 ‘민족의 자서전’이다. 투쟁과 경쟁을 통한 진보가 아니라, 나태하게 계급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민족은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파시즘은 소부르주아의 ‘정치적 육화’이다. 소부르주아는 의회를 파괴한 후에 부르주아 국가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더 큰 규모로 법의 권위를 사적 폭력으로 대체하고, 이 폭력을 혼란스럽게, 더 난폭하게 행사한다.

- ① (가)는 ‘소유 관계’와 ‘계급 구조’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아 탈하이머와 바이다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 ② (가)는 ‘전통문화와 타협’하는 대중의 ‘수동적 동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핀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 ③ (나)는 ‘사회 개혁’을 중시하고 ‘민족적 모순’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핀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 ④ (다)는 ‘의회’와 ‘부르주아 국가’를 파괴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아 팩스턴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 ⑤ (다)는 ‘정치적 육화’라는 말로 ‘소부르주아’가 파시즘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톨리아티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프랑스 극우민족주의 세력인 국민연합은 과거의 인종주의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프랑스 공화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합은 공화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시테’, 즉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라는 세속화를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1905년 법률로 확정된 라이시테 원칙은 당시 보수적 가톨릭이 정치 및 교육에 개입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 원칙에 의거하여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지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무슬림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획득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 법과 가치에 대한 의무가 강조됨으로써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보다는 통합되는 자의 책임과 의지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원래 국민국가 시기에 인민은 동일성에 기반한 ‘네이션(nation)’, 즉 ‘민족/국민’이라는 틀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구성되었다. 네이션의 동일성은 문화적 기반을 강조하는 폐쇄적 ‘민족’ 개념과 정치적 원칙에 대한 동의만을 조건으로 하는 개방적 ‘국민’ 개념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왔다. 후자가 전자보다 공화주의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극우민족주의**에서 제시하는 네이션은 문화적 개념과 시민적 개념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경계를 갖는 포섭과 배제의 논리로만 작동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는 네이션을 새로운 상징, 가치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네이션에 대한 호명을 시도한다. 네이션의 구성에서 극우민족주의자들은 과거처럼 종교, 문화 등의 기준을 통한 적극적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 방식, 즉 이러저러한 것은 네이션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네이션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네이션을 재구성한다. 그들에게 네이션은 존재하지 않는 ‘망령’일 뿐이다.

또한 그렇게 구성된 네이션은 시민들의 집합체,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주권자라는 위상을 잃고, 정치적 주체로서 보다는 치안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이 야기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비경제적 유형의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결국 정치(politics)는 사라지고 치안(police)만이 남는다. 국민국가 수준에서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밑바탕이 되었던 공화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사회적 국민 국가는 후퇴하고, 이민 노동자 등 잉여 노동력의 공급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그 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배제의 정치 전략이 작동한다. 즉 극우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와의 동거를 통하여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비시민의 구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에 ‘잉여’로서 존재하는 이민 노동자나 ‘위험한 외국인’을 통합 불가능한 자들로 여겨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유색 인종 노동자들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위험한 계급으로서 국가 권력이 수행하는 ‘안전의 정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상 상황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강조되면서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권력의 예외적인 행사 역시 일상화된다.

극우민족주의는 기존 좌우 정당의 틀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면서 세력화를 추구한다. 극우민족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세력의 30~40%가 과거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이라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극우민족주의는 포퓰리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출발이 근대 대의제의 거부와 인민의 직접적 정치 실천에 대한 욕망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우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근대 대의제 정치가 ‘상징적’으로 전제하는 대표되는 자의 단일성을 위해 내부의 타자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구성하는 주권적 인민의 배치 안에는 국민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 인민으로 실존하지 않는 많은 인민이 존재한다. 두 차례 세계 대전 전후에 등장했던 전체주의적 권력은 단일성을 위한 상징적 권력과 사회적, 계급적 분할에 의해 단일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동일시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최근 프랑스 극우민족주의는 공화주의 원칙을 무슬림에 대한 배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최근 프랑스 시민권 획득의 조건에서 통합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보다는 이주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③ 최근 극우민족주의는 기존에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노동자 계급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 ④ 국민국가 시기에 정치적 원칙에 기반한 국민 개념은 문화적 민족 개념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 ⑤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와 네이션은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직접적 정치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최근의 극우민족주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적 민족 개념과 시민적 국민 개념의 차이를 없애면서 국민적 동일성에 기반한 정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② 위험한 계급에 대한 새로운 호명을 통해 치안을 위한 장치이자 연대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네이션을 재구성하여 근대의 대의제 정치를 폐기하고 직접적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 ④ 이주 노동자 등을 공동의 ‘적’으로 호명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예외적 행사를 정당화하려 한다.
- ⑤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증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안전의 정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근대 정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인민을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킨 포퓰리즘은 대중 영합적 정치로의 변질 가능성뿐만 아니라 ㉠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가능성도 지닌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적인 것',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협한 동일성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 필요하다.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할 주체를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편협한 국가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와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 ① 국민과 계급,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중이 정치의 전면  
에 등장한다면,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치안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 ② 정치적·경제적 동기에 의해 생겨나는 이주민을 포용하는 통합의  
장치를 작동시킨다면, 국민적 단일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가 등장할 위험이 있다.
- ③ 대중이 정치체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권력과 단일  
화될 수 없는 실재적 권력을 구별한다면, 동일화될 수 없는 인민을  
배제하는 동일성의 정치가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④ 공화주의의 정치적 원칙을 기반으로 네이션을 적극적으로 구성  
하여 새로운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주체로 삼는다면,  
신자유주의로 인해 훼손된 국민국가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복원될 것이다.
- ⑤ 비정규직, 난민, 이주 노동자 등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인 것'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국민국가 방식의 해결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적  
실천을 모색한다면, 경계 구분을 통한 배제의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와 세계 질서가 도래할 수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한의 순간에는 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행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안정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다.
- ②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ㄱ)와 아렌트의 견해(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ㄱ은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ㄱ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ㄴ은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ㄱ과 ㄴ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다음은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을: 데리다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은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 ①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종결
- ②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 ③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
- ④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
- ⑤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하여 법질서의 해체를 지향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은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② ㉠은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은 제한 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③ ㉠은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④ ㉠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 왕권 체제였던 A 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토의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B 연방국을 설립하였다. B 연방국은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B 연방국의 C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C 지역의 주민 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

- ① A 국에서의 혁명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군.
- ②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군.
- ③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보겠군.
- ④ C 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보겠군.
- ⑤ C 지역의 주민 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를
- ② ㉡: 다다를
- ③ ㉢: 누릴
- ④ ㉣: 뒷받침할
- ⑤ ㉤: 여겨져

◆ 21 LEET 언어이해 13~15번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8혁명 이후 구조에서 차이로, 착취에서 자유나 배제로 문제 설정이 변화하고, 신자유주의적 반(反)정치의 경향이 강화되었던 1980년대에 **르포르**는 ‘정치적인 것’의 활성화를 제기하였다. 그에 앞서 아렌트가 고대 아테네의 시민적 덕성의 복원을 통한 정치적인 것의 활성화를 제기했다면, 르פור는 근대 민주주의 자체의 긴장에 주목하면서 ‘인권의 정치’를 통한 정치적인 것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그는 인권을 공적 공간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면서 개인에 내재된 자연권으로 보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소유권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거부한다. 르פור는 자유주의가 인간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환원시킴으로써 사회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개인과 국가의 표상관계를 통해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서 국가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뿐이라고 비판한다.

르פור는 1789년 「인권선언」의 조항들이 ‘개인적 자유’보다 ‘관계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본다. 선언의 제4조에서 언급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공간이 권력에 대해 권리들의 자율성을 향유한다는 의미이자, 어떤 것도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언급한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의 자유’ 역시 근대 사회의 시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르פור는 이러한 권리가 개인과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라기보다는 개인들끼리의 공존 형태, 특히 권력의 전능으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침탈될 우려에서 비롯된 특정한 공존 형태에 대한 정치적 개념이라고 본다.

르פור는 ㉠ 권리와 권력의 관계에 주목한다. 18세기에 형성된 인간의 권리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표상을 붕괴시키는 자유의 요구로부터 출현했다. 근대에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존재해 왔다. 인간은 특정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인정될 때, 즉 이방인이었던 아렌트가 포착했던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르פור가 제기하는 것은 권력이 권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저항권은 시민 고유의 것이지 결코 국가에게 그것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권리의 선차성이며, 권력이 권리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의 비판자들은 권리가 권력을 통해서만 존재해 온 역사를 르פור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의 정치를 통한 권리의 확장은 권력의 동시적인 확장, 나아가 전체주의적 권력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속성인 인민과 대표의 동일시에 따른 대표의 절대화를 통해 ‘하나로서의 인민’과 ‘사회적인 것의 총체로서의 당’에 대한 표상의 일치, 당과 국가의 일치, 결국 ‘일인’ 통치로 귀결된 전체주의가 그 예라고 르פור를 비판한다.

물론 르פור도 새로운 권리의 발생이 국가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대한 제어와 감시가 필요하며,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강조된다. 공적 영역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자유는, 시민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장치이자 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활성화를 통해 공론장과 같은 민주적 공간을 구성한다. 그러한 민주적 공간을 구성하는

권리로부터 법률이 형성된다. 따라서 권리의 근원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독점되지 않는 권력이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상징적으로는 단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적으로 공유되어야 함에도, 이를 오해한 것이 전체주의이다.

결국 르פור는 권력이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넘어 쟁의가 발생하는 장소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제시함으로써 법이 인정하는 한에서 권리를 사유하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권리들이 권력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 생성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인권의 정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주체들의 자유를 위한 무기가 된다. 나아가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관념은 인간의 권리의 실현 조건으로서 국가권력이라는 틀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는 급진적 흐름으로서 세계시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3. 밑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아렌트는 시민적 덕성의 복원을 통해, 르פור는 인권의 정치를 통해 공적 공간의 민주화에 대해 사유한다.
- ② 르פור는 근대 국가권력의 상징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과 국가의 표상관계를 통해 권력의 단일성을 이해한다.
- ③ 자유주의자들은 자연권 혹은 소유권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파악하면서 민주주의를 개인의 권리들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쟁의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 ④ 전체주의는 근대 민주주의가 피통치자로서의 인민과 통치자로서의 대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극단화될 때 나타난다.
- ⑤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의 권리가 실현되는 조건으로 국민국가의 성원이라는 전제를 거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14.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르포르의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권력이 보장할 수 없는 시민 고유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근대의 민주적 권력은 상징적 및 실제적 권력의 단일성에 근거하여 권리를 확장시켜 왔다고 본다.
- ③ 근대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개인을 국민이라는 성원으로 인정하는 한에서 권리를 부여해 왔다고 본다.
- ④ 국가권력이 설정한 권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국민국가 초기에 인정되지 않았던 권리들이 인정받았다고 본다.
- ⑤ 권리를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권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민주적 공간을 구성하는 동력이 된다고 본다.

15. 르포르와 <보기>의 푸코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푸코는 개인의 삶 자체가 위협이라는 인식하에서 국가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생명관리권력의 시대'가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대에 개인의 권리의 확대는 개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가가 더 깊이 개인의 삶에 침투하는 권력으로 전환되는 역설을 낳았다. 개인이 권력의 시선, 즉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권력이 만들어 낸 주체가 되어간다는 점에서, 근대의 자율적 주체는 사라져 버렸다. 푸코는 개인에 대한 억압을 강조했던 기존의 권력 관념을 대신하여 국가권력이 생산적 권력임을 강조한다.

- ① 르פור는 권리에 대한 권력의 종속을 비판했다면, 푸코는 개인의 삶에 침투하는 권력의 특성에 주목했다.
- ② 르פור는 인권의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했다면, 푸코는 권리에 대한 요구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려 했다.
- ③ 르פור는 권리의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의 비대화 및 독점화를 우려했다면, 푸코는 자율적 주체에 의한 권리의 확장을 주장했다.
- ④ 르פור는 권력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 권리의 주체를 형성할 것을 주장했다면, 푸코는 국가권력이 권력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주체를 생산하고 관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 ⑤ 르פור는 전체주의가 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을 근대 민주주의 내에서 찾으려 했다면, 푸코는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을 권력 내에서 찾으려 했다.